

폭력이 한 수단이 되었을 때,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Carolyn D. Townes, OFS, National Animator,
Justic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

“끊임없이 강하게 일으켜 세워져야만 하는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대화를 통해 일치와 형제적 화합의 길을 찾아야 하며,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신성한 씨앗의 현존과 사랑과 용서의 변화시키는 힘을 신뢰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완전한 기쁨의 사자(전달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재속회 규칙, 19 조항

올해는 형언할 수 없는 폭력의 해였습니다. 대량 총격, 폭탄 테러와 전쟁, 마음과 정신과 언어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시민의식은 어디로 갔을까요? 연민과 존경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나요? 젊은이, 무고한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보호하는 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고통받거나 버림받은 자들의 곤경에 우리가 언제 그렇게 둔감해졌나요? 동료 인간을 돌보는 것이 언제 선의의 행동이 아니라 정치적인 선언이 되어버렸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이런 것이 일반적인 일이 되도록 허용했을까요?

옛날 옛적에 한 사람의 말은 그들의 유대이자 명예의 서약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거래에 필요한 것은 악수, 아는 미소, 마음으로 느끼는 동의뿐이었습니다.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들, 모든 아이들, 누군가의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들인냥 보살폈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신을 살피고 보호하고 지켜보고 있는 다른 시선이 자신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특정 외딴 곳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아이들은 다른 어른들은 고사하고 더 이상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른들은요?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해야 할 일에 너무 바빠서 다른 사람의 자녀는 물론이고 자신의 자녀를 돌볼 시간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말에 의미가 있던 시대에는 환담이 더 많았고, 논쟁이 적었고, 대화가 많았습니다. 논쟁은 상대방을 이기고 다른 사람이 잘못 되었다고 만들어버리는 것 보다는 건전한 대화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날들은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 당신의 관점을 이해하기 보다 왜 당신이 잘못된 것으로 만들어야 하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못된 것으로 만들 때 우리는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들에게서 배우고, 따라서 성장할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죠.

애도 상담전문가이자 전임 간병인으로서, 저는 반응이나 반박하는 것을 듣는 것 대신에 이해하기 위해 경청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답이 없어도 됩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머리에서 나와 자기가 말하는 것을 공감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영혼과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당신이 고통받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전부라면, 사실 가장 큰 선물을 준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에 관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그와 그의 형제 수도사가 설교하기 위해 이웃 마을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걸으며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들의 이야기와 어려움을 듣고 사려 깊은 말과 기도를 나눴습니다. 그들이 마을 변두리에 도착했을 때, 그 수사는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설교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설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 형제에게 그들이 행동으로 설교를 했다고 확신시켰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경우라면 말을 사용하십시오.” 라고 이 작은 이야기를 아름답게 들려주었습니다.

프란치스코로서 우리는 형제자매들을 고치도록 부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경청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경청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성령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고쳐주실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알지 못하나 성령은 아십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할 만큼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방감입니다. 상상이 되나요? 내가 모든 답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형제 자매들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할 일은 사랑하고 듣는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것처럼 계속해서 당신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